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on-line 대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그들의 필요

The educational experience in the on-line universi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and their needs

이 문 속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YI Moun-souk

Seoul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요약

1998년 이래 2014년 3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수는 26,5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북한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대학교육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이 다수이며, 이들 중에는 사회·경제적 여건 상 on-line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on-line대학을 접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교육경험을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필요가 무엇인가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I. 서론

1998년 이래 2014년 3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수는 26,5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북한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대학교육을 경험하고자 하며, 이들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 여건 상 on-line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on-line대학을 접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교육경험을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필요가 무엇인가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주요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육 경험이 있었거나 교육 중인 전체 15명의 여학생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또는 연구를 일반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최대화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유의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S사이버대학교와 2개 이상의 타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1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달 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룹 설문조사와 그들 자신의 개념과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된 내용을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필사된 내용과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내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들을 공통된 주제별로 묶어 따로 정리하였으며, 도출된 주제들을 비교분석하여 관련된 주제들과 구분되는 주제 등을 분리시켜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III.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on-line 교육 경험의 구조

첫째, 언어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on-line 교육 경험을 통해 언어사용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오랜 분단의 기간 동안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간의 용어, 단어 사용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으로 한국어의 빠른 습득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남한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영어 사용은 이들에게는 일종의 고통임을 얘기하고 있다.

둘째, 심층 면담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직업과 연관지어 대학의 학과를 선택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사회복지학과나 상담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현재 직업이 없는 학생들도 그들 동료들의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담사를 직업으로 택하려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대부분이 북한사회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남한사회로 유입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이곳 사회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정 학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교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언어에서 오는 불리함을 이유로 on-line 대학교에서의 수업진행에 있어 - 특히 시험, 과제물, 토론 등 - 에 있어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on-line 교육에서 오는 소통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면담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방식에다가 수업진행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적어도 두 학기 이상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웠음을 토로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 [1] 강보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7집, pp. 127 - 152.
- [2] 박성정.오은진 “북한이탈여성의 직업훈련경험과 개선 과제”, 직업교육연구, 제31권, 4호, 2012
- [3] 정진화(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과 취업”,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pp. 267 - 295, 2013
- [4] Catherine Meyor, “Le sens et la valeur de l’approche phénoménologique,” Recherches Qualtatives, Hors Série, No4, pp.103-118, 2007.